

전도서 1 장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면 솔로몬뿐인가?

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후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혜롭고(12:9) 큰 부자(2:4-8)였던, 더구나 전도자(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라면 솔로몬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

2. '헛되고 헛되며(헛된 것 중의 헛된 것 = 최상급)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말은 무능한 사람의 외침이 아닌가?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한 말이나에 따라 다르다: 진짜 가진 것도 없이 고생만 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별로 새겨들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말이라면 의미가 다르다. 소위 말발이 선다는 뜻이다. 신앙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아마 전도서를 쓰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또, 그 한 마디로 끝이라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전도자는 진짜로 할 말(12:13-14)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3. '해(하늘) 아래'라는 표현은 계속 반복된다(거의 30번 정도).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없는 인생(2:24): 해 아래(하나님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비록 유한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선물(贈物)이요 분복(分福)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4.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여러 가지다. 각각 어떤 이유로 헛된가?

유익이 없다(수고), 일시적이다(세대), 결국 제자리다(해, 바람), 채우지 못한다(양물), 족함이 없다(눈, 귀), 새 것이 없다. 기억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인생이 허무한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인생의 표상인 썸이다. 인생이 회복되는 날 만물도 회복될 것이다(롬 8:20-21).

5. 땅이 영원히 있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

사라지는 세대와 함께 사라진다면 인생이 될 억울할 텐데? 인생은 사라지는데 땅은 왜 영원히 있는 거야? 옛날 *The end of the world*란 팝송의 가사가 이렇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내 사랑이 끝나면 세상이 끝인데 왜 태양은 계속 빛나고 왜 파도는 계속 치느냐는 거야. 세상이 끝났다는 걸 모르는 거야?

6.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생기는 것이 적지 않은데 왜 헛되다고 하는가?

일시적인 유익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해 아래서(하나님 없는 인생이) 얻은 것이 궁극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잔칫날을 앞두고 잘 먹이는 돼지나, 사형집행을 앞두고 특별식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7. 요즈음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이 몇 천 년 전의 기록에도 있더라. 전도서 기자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잖아!

8.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한 가장 큰 이유를 결론삼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억되지 않는 것(11): 우리 인생도 흘러가는 물처럼, 지나간 바람처럼 그냥 사라질 뿐이라는 말이다. 너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이란다. 주일에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간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홀인원을 했다는 거란다(그게 그렇게도 자랑하고 싶은 거라는데). 자랑할 수 없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시 후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한다면 너무 너무 슬프고 허무하다는 말이다.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낱알이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14-15):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말이 되는가? 그에 비하면 택도 없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대로 된 지혜다.

9. 우리가 왕이 된다면 무슨 일이 하고 싶을까 생각해 보자. 전도자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왕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겠지! 주로 안 좋은 일이 더 많을지도! 그런데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지혜를 더 많이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한다(16-17). 왕이 이런 노력을 많이 했더니? 이것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썸이다!

10. 인생(사람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헛된 것이 되고 말았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하라고 주셨기 때문(13): 아담이 범죄해서 초래한 것이다. 죽을 죄 대신에 수고롭게 하셨으니 그래도 감사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야 할 상황이지만 고생하는 대신 회복될 길을 열어주셨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현실만 보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지만 전체 과정을 다 살펴보면 수고를 감사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죄도 없이 인생의 허무함에 동참하게 된 만물도 허무한 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다(롬 8:20-21).

11.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 누가 더 고민이 많을까?

부자: 재산이 없어도 고민이지만 많으면 더 고민이 많아진다. 지혜도 그렇다(18)!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빼고!

12. 1-11절이 만물이 허무하다고 하는 내용이라면 12-18은 무엇을 허무하다고 하는가?

지혜: 만물이 허무하다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이다. 그런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허무한 인생의 지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 비유권대 거지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 중에 재산이 많다고 자랑해 봐야 그게 얼마나 큰 부자겠는가! 꼬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많이 안다고 자랑해봤자 어른들 눈에는 그게 그거다!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롬 8:6)이 참된 지혜다.

전도서 2 장

1.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솔로몬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시험을 했을까?

자기: '내 마음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을 보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짓을 다 해 보았다는 말이다. 1장에서 만물도 허무하고, 지혜도 허무하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육신의 즐거움도 허무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허무한 것인지도 모른다. 연극이 끝나고 관객이 다 돌아간 후에 느끼는 (더구나 슬픈 사연을 가진) 희극배우의 허무함이 이럴까?

2. 웃음은 암도 고칠 수 있다고 야단인데? 일부러라도 웃으라고 하던데? 이걸 함부로 미친 짓이라고 하면 되나?

태양 아래 촛불과 같은 것? 억지로 웃는 웃음도 효력이 있단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과 희락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도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3. 무엇이 선한(=좋은) 일인지 알아보려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했는가(3)?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고, 육신은 솔로 즐겁게 하면 될까 고민을 했다. 결과는 말하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겠지.

4. 무엇이 선한(좋은) 일인지 알아보려고 외부적으로는 무슨 일을 했는가(3-8)?

사업을 크게 했다: 짐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재산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누렸다(양상 10:23, 11:3). 그렇지만 그것도 허무하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엄청난 부를 허락한 것도 바로 이 한 마디를 위함일 것이다.

5. 4-8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 개역 성경에는 이 표현이 4번 반복되지만 영역본은 천차만별이다. NIV는 2번, NASB는 6번, NKJV는 5번 나온다. 원어에는 8번이다(4절에 2번, 5절에 1번, 6절에 1번, 7절에 2번, 8절에 2번). 가령, 4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짐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하는 식이다. 번역본마다 이렇게 횡수를 달리한 것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과도하게 반복된다는 의미다. 저자가 그런 의도로 그렇게 반복한 것은 번역본들도 그 느낌을 살려야 할텐데... (이 표현이 영어로는 3음절(for myself)이나 2음절(myself), 우리말로는 5음절, 원어는 1음절이니 이런 차이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허무하더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6. 일찍,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유명 배우, 복권 당첨자)은 말년이 불행한 경우가 많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주 행복한 셈이다. 왜 그런가?

그 많은 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니(9):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많은 부와 지혜를 동시에 가졌으니 그나마 자기 시대에는 제대로 누리고 즐겼다(10).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즐겼지만 허무하더라는 것이다. 차원이 다른 허무함이다.

7. 솔로몬은 자신이 겪은 일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한다. 자기의 뒤를 이은 왕들이 염려스러운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와 동일한 과정(=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을 밟을 것이기 때문: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내가 이 모양인데 다른 왕들이 또 그런 욕심을 부리겠지만 결국은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니 걱정이 되는 것이다. 왕으로서 나라를 위한 걱정이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다.

8.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13) 지혜가 유익이 없다니(15)?

큰 차이가 없다는 것(오십보백보), 혹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죽음으로 모든 것이 잊혀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우리는 원숭이가 손이 자라지 않는 곳의 바나나를 막대기를 이용해서 따 먹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감탄을 한다. 아주 영리한 놈이라고! 다른 짐승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영리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IQ가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도 그렇게 영리한 원숭이에 비교하면 천재 중의 천재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는 IQ 140이니, 200이니 하고 자랑한다. 대단한 두뇌인가? 사람끼리는 그렇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따먹는 원숭이의 지혜로움보다 못할 지도 모른다. 이걸 깨닫고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구별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9. 자신이 행한 모든 수고를 왜 미워하는가?

자신이 다 누리지 못하고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18, 21): 지나친 욕심 아닌가?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다 써야 하는가?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자신이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한다(신 20:6 28:30).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는 현세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사 65:21-23).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에 이런 식으로 허무함을 느끼지는 않을 텐데...

10. 자기의 뒤를 이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아무도 모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어느 쪽인가?

우매자: 르호보암 말이다. 어리석은 짓을 해서 나라를 돌로 쪼개지게 해버렸다. 솔로몬이 예상했던 것보

다 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아니, 예상을 너무 잘 했나?

11.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니(24)?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겨우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가? 좀 더 의미있는 삶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삶도 귀중한 것이다.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한다.

12.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모아 쌓게 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말이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아껴 절약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평평 쓰며 살텐데?

전도서 3 장

1. 범사에 때가 있다면 그 때가 되기 전에 행한 노력은 어떻게 될까?

소용이 없다: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이다(단 4:35, 엡 1:11). 그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굳이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가령, 아이는 10달이 차야 나온다. 그 전에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 혹시 효력이 있다면 잘못되는 일이다.

2. 어떤 안 믿는 친구가 말했다,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인들 어떡할 근데?' 이런 귀방진 친구에게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셈인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날 때를 골라서 스스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다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3. 사람에게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누구에게?

식물: 농사도 아무 때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해진 때를 잘 따라야 수확도 많이 거둔다.

4. 초상집에 문상중인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 전도자의 어떤 말이 적합한가?

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때를 잘못 맞추면 정말 죄송하고 황당해진다.

5. 풍량이 점점 더 거칠어질 때 요나를 태운 배의 선원들에게 적합한 표현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무리 목숨같이 소중한 재물이라도 살려면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할 때가 있다!

6. 주변 3국을 향해서 영토 분쟁을 일삼는 일본에 적합한 구절이 있을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7. 일해도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9) 일하지 말라는 애근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익하다는 말이다. 무엇이 되든가 싶어도 한 순간에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이다(10). 일시적으로 누리는 낙이 진정한 낙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말이다.

8. 인생의 온갖 노력이 다 유익이 없다고 하더니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셈인가(11)?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고)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9. 참으로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이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고생하며 사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면 인생이 더 뼈뺏해질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한사코 알려주지 않은 이유도 그런 것 아닐까? 바꿔 말하면 인생의 윤희함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10.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보고 내린 결론으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12):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다른 많은 일도 기쁨을 주기는 주지만 어딘가 모르는 허무함이 항상 따라 다닌다. 경우에 따라서 기쁨이 독이 되기도 한다.

11.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홍수의 원인이기도 한데(마 24:38) 전도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정계 사유가 되는 것이다.

12.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처절하게 노래한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점과 대비되기 때문인가?

영원하심(14):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그 영원함이 본래 우리 것이었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영원을 생각해 보면 잠시 온갖 것을 다 누린다 해도 너무 너무 허무할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잠 9:10)

13.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느낀 중요한 요인이다(1:9).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15)고 노래하는가? 허무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란 뜻: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14)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새 것이 쏟아져도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변함이 없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14. 재판하는 곳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곳이다. 어떻게 그 곳에서도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사실은 악이 가장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정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령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종교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질러지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더 극악하기도 하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타락한 인생이 하는 일은 이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7).

15. 악이 횡행하는 이런 곳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17).

16. 짐승과 다름이 없다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다: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큰 소리를 쳐도 사람들끼리의 얘기다. 형광등이 촛불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은 햇빛이 없을 때나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서면 짐승이나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다.

17.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같이 죽는다는 점이다. 그래도 다른 점이 있는가?

인생들의 혼은 위로(하나님께서) 올라가고 짐승의 혼(=호흡)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 짐승에게도 혼이 있나?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이나 혼이 없다는 말이나 내용상 마찬가지다(혼으로 번역된 '루아흐'는 호흡으로도 번역이 가능함). 날고 있는 비행기의 비행을 정지시켰다는 말이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18. 자신이 행한 일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자기 일을 즐겨워해야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니 즐겁게 해야지!

전도서 4 장

1. 살아 있는 자, 죽은 자,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 중에 누가 가장 복되다고 하는가? 이 말에 의의가 있는가?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 이교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는 언젠가 출생해서 이런 학대를 다 경험할 것인데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그러니 아예 출생하지 않는 자가 제일 낫다(렘 20:18). 옴의 표현을 빌리면 태어나지 않고 죽는 자가 제일 낫다(옴 3:11). 이대로 끝냈다면 그야말로 허무주의의 극치다. 그런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 자신만 보며 산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철학)는 증거다. 그래서 솔로몬은 철학자다.

2.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게 해결책이 없을까? 무언가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면?

위로자가 있을 것(1): 위로자만 있으면 모든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듯한 표현이다. 아마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생의 복 없음을 노래하는 것이리라.

3. 자신이 잘못해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 왜 그럴까?

있다(너무 잘 나서), 시기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다.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적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이단이나 아니냐의 문제도 때로는 인간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기도 한다.

4. 우매자는 어떻게 자기 몸을 축낼까? 가만히 있으면 축이 나지 않는데?

잘 하는 사람을 시기함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능력이 없으니 일은 하지 않지만 시기함으로 못된 짓은 한다.

5.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했으나 자녀교육은 실패하거나 가정이 깨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적당한 성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손 가득 채우기보다는 한 손만 채우려는 절제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루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

6. 아들도 형제도 없는데 왜 수고를 그치지 않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할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기 때문: 맹목적으로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그 옛날에도 있었나보다. 아니, 사람의 본성이 그런 모양이다. 그 본성에 따라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부를 축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일하는 것 외에는 달리 낙을 누릴만한 일이 없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도 더러 있는 모양이다.

7.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10-12절)

범어질 때 볼들어 주는 것, 함께 누우면 따뜻한 것, 싸울 때 유리한 것: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험한 여행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길은 험하고 날씨는 추운데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는 길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셋이면 더 낫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지? 8절에 부속된 내용이다. 홀로 수고하는 사람의 허무함을 설명하는 말이다.

8. 가난하게 태어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젊은이가 왕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떠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왜 허무한가?

곧 잊혀질 것이니: 아무리 통치를 잘 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곧 잊혀진다. 후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인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두렵지가 않지만.

전도서 5 장

1. 하나님 앞에서 삼가야 할 것이 무엇 무엇인가?

발과 입: 입을 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다(1). 발은 어떻게 삼가지? 출랑대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말일까? 말씀을 듣는 곳에 가까이 가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2.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높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한 마디로 도무지 계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네가 니 친구냐?' 이러면 죽었다! 그렇게 높은 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친구가 되신 것은 다른 얘기다. 그런 사이가 되어준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3.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는 원인이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기 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런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곧 악을 행함이다. 근본적인 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삼상 15:22).

4.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많이 말하지 말라(2-3): 그렇다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말은 잘, 자주 해야 한다. 별 의미가 없지만 수시로 해야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등이다.

5. 서원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사람끼리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 한 약속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한국 사람은 약속을 좀 가볍게 여기는 수도 있지만 영어의 *promise*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쉽게 *promise*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말의 '약속'은 영어의 '*promise*'와 같은 것이 아니다.

6.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실수를 적게 할 것이며 혹시 실수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7.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싶어도 놀라지 말란다. 사람이 사는 어떤 세상에도 이런 류의 불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참으라는 것인가?

그들을 벌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도 참고 견딜 여력을 주기도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무력하게 당하고 있으라는 의도는 아니다.

8. 왕이라 할지라도 땅의 소산을 받고 사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은 인간은 누구인가?

7절의 악한 자들: 그러니까 8절은 7절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억울하게 백성을 착취하는 높은 자가 결코 명이 길지 않다. 정당한 댓가를 누리라는 것이 명이 길다.

9. 은보다 금이 몇 십배는 더 비싼데 이왕에 부의 축적을 말하려면 금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은은 돈을 의미한다. 은을 화폐로 쓰던 흔적이다.

10. 재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행복한 것 아닐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욕망은 무한하고(10) 소비도 비례해서 많아지기 때문이다(11). 상실에 대한 염려도 따른다(12, 14).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행복수준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얼마를 번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데에는(=눈으로 보는 것) 유용할지 몰라도 행복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재물이 적지 않다.

11. 그러니까(12) 잠을 잘 자는 노동자로 살라는 건가, 자지 못하는 부자로 살라는 건가?

부자의 단점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다. 해가 되도록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거지의 행복을 너무 예찬해도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는 엄청나다. 부자는 마음만 잘 먹으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도울 수 있다.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단다. 그 말도 우유배달 하는 것을 권장하는 말은 아니다.

12.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로울 수 있다(12-13). 사라질 수 있다(14). 돌아갈 때 가져가지 못한다(15-16).

13. 아들은 낳았으나 손에 아무 것도 없다니?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말이다. 재물이라는 것은 사고나 재난에 의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수도 있다.

14. 왜 어떤 사람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데(17)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낙을 누리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가(18-19)?

하나님의 유무에 따른 차이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느냐 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면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6 장

1. 먹을 것은 많이 있는데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과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할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인제가 먹게 될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며 악한 병이다(1-2).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래도록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신 5:33).

2. 구약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을 정말 좋은 복으로 여겼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있는가?

영혼의 만족과 안장: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3. 죽으면 그만이지 안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땅에 안장되는 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여겼다.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여겼다(왕상 21:24, 사 14:19). 그래서 열조의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큰 복으로 알았다(왕하 22:20, 대하 26:23).

4. 전도자는 낙태된 인생을 복이라고 하는가, 불행하다고 하는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천 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마음의 행복을 보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반드시 행복이 아니다. 낙태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5. '먹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 인생에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전도자도 이 말에 동의할까?

일부 혹은 조곤부로 동의함: 사람이 수고하는 이유가 입을 위한 것 아니냐(7)는 것이 그런 의미다. 그러나 그 식욕을 다 채울 수는 없다고 한다. 입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식욕이란 원어상으로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시적 만족을 줄 수는 있으나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 온전한 만족을 위해서 더 할 말이 남아있음을 번지지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6.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8)? 무슨 뚱뚱지같은 소리야? 당연히 지혜자가 낫지! 실은, 지혜자는 바로 다음 문장의 가난한 자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가?

가난하지만 빠르게 처신할 줄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은근히 지혜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투다. 실제로 전자가 나은 것을 알면서도 오십보백보 아니냐고 말하는 셈이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9). 정말 강한 자가 따로 있는데 우리끼리 누가 더 강하고 약하다고 씨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7. 어느 야심 많은 왕이 그랬다면가? 앞선 왕들이 땅을 다 정복해버려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슬프다고. 참 불행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으로 불행하다. 무엇이든지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 말이다. 이게 왜 불행한가?

이름이 불리어졌다는 것은 성격이나 특성이 규정되었고 질서와 법칙이 주어졌다는 의미다. 누가 만물에 이름을 주었는가? 아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대로 잘 따라했을 뿐이다. 말하자면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한 자와 다투지 말라고 한다. 우리가 규정짓고 새롭게 만들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인생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변형시켰을 뿐이다.

8. 말이 됐든 일이 됐든 열심히 노력하고 보태봐야 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기 때문(12):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다. 오늘 좋다면 것이 내일 독이 될지 누가 아는가? 그러므로 더 넓은 시간을 감안해보면 우리의 답이 올바른지 그른지조차도 알 수 없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 영원이라는 바깥세상에서 짧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전도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전도서 7 장

1. 정말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나은가? 죽는 날이 설마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알고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다.
2. 1절에서 좋은 것과 덜 좋은 것끼리 짝을 지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좋은 이름과 죽는 것이 좋은 기쁨과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즉,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 것이 좋은 것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 특히 히브리인들은 좋은 이름이 오래 기억 되는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했다(욘 18:17, 잠 10:7).
3.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가?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때문: 권세나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일정한 임기가 있음을 아는 통치자와 임기의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독재자는 통치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4.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 낫고,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면 무슨 낙으로 살라는 말인가?
인생에게 종말이 있으니 그 이후를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이 낫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
5. 숲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면 어떻게 될까? 맛있는 밥이 나올까?
쉬 사라진다는 뜻: 가시나무는 땀감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타는 소리만 요란할 뿐 별 화력도 내지 못하고 이내 사그라지고 만다.
6. 탐욕이나 뇌물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7)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는 것이다: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셈이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7.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이유를 잡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관련지어 보자.
잘 참고 일을 끝내는 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설치다가 시작만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 참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는 것(9)도 교만한 시작과 비슷한 것이다.
8. ‘아, 옛날이여!’ 이런 노래 가사처럼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옛날의 형편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8-9절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교만한 마음과 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다면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는 셈이다.
9. 유업(유산)이나 돈은 유익한 것이다. 아니,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눈이 빨개서 설칠 만큼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지혜가 그것보다 더 유익한 이유가 무엇인가(11-12)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 유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많은 유산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할 능력과 목숨을 지키는 능력이다. 이것이 지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기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
10. 아무리 하나님께서 급게 하신 것이라도 달나라도 정복한 인간이 곧게 할 수 없을가?
때로는 위대한 업적은 남긴 것 같아 보어도 인간은 인간일 뿐 키를 한 자라도 늘일 수는 없다(마 6:27).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것을 발견하거나 응용할 뿐 없는 것을 만들어낼 능력은 전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 마치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영생을 누릴 것 같이 호들갑을 떨어도 지나고 보면 여전히 나약한 인간임을 확인할 뿐이다.
1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하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장래사를 아는 것: 그래서 인생사가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15).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롭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듯이 인간에게는 시공간이라는 영역 내에 머무를 때가 가장 자유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숨겨진 미래를 알려는 노력은 위험하다. 다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가 올바르다.
12.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 아닌가? 하긴,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고 하더라.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다. 지나칠 만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20)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말라는 충고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 전에 죽게 된다. 근래에 와서 말하는 40대 돌연사가 그런 예가 아닐까?

13.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저런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족한 인간의 온갖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안정적이다.

14. 지혜가 열 왕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20): 열 왕이라도 지혜롭지 못하다면 의롭지 못한 인간에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다. 늑대 소굴에서 고기 덩어리를 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곳이다(신 6:18, 11:23-25).

15.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

남을 나쁘게 하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을 마음에 두면 결과적으로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종들이 쉽게 수긍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지자면 너도 그런 짓을 했잖아(22)! 권력자들이 흔히 '나는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하지 마라'는 식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16. 의인이 없는 세상이기에 지혜는 더욱 귀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지혜가 귀한 줄은 알지만 그 지혜를 통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구할 수 없고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림의 떡 아닌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지혜가 이런 것이다.

17.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4글자로 줄인다면?

악한 여자: 이런 여인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26).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욱 옥죄어드는 울무다. 남자들에게 통하는 소리다. 이렇게 무서운 악한 여자를 어떻게 피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노라면 이렇게 무서운 여자가 황홀한 기쁨이 될 것이다. 마치 마약 아편이 최고의 진통제가 되듯이!

18.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만든 탓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문제는 사람이 많은 피들을 낸 것이다(29): 짐승처럼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되겠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을 뿐인데 선택을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정말 은혜를 악으로 갚는 셈이다.

19. 천 명 중에서 남자는 한 사람을 찾았고, 여자는 한 사람도 못 찾았으니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나은가?

오십보백보보다 훨씬 못한 차이다: 0.1% 와 0%가 만나서 누가 더 지혜로우냐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남녀의 우열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소중한 것임을 알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이 허망하더라는 것이다.

전도서 8 장

1. 1절을 관상쟁이가 말하는 식으로 고쳐보자.

얼굴에 광채가 없고 사나우면 지혜가 없는 상이다, 혹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유순하면 지혜가 있는 상이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이걸 과도하게 확대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나 인격 전체를 판단하는 것(=관상)은 문제가 많다. 본문은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마음을 평화롭게, 혹은 즐겁게 함으로(잠 2:10) 외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스테반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나타났던가? 링컨이 그랬다면가? 나이 40이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다.

2. 왕을 노엽게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으니(2)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맹세했으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다. 왕을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이렇게 섬길 것이다.

3. 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5-6절을 근거로 설명한다면 지혜는 무엇인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언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잘 하는 것이다.

4. 장래 일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7) 무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혜롭게 올바른 때와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이다(5-6).

5. 바람이라는 단어는 '생기, 영, 호흡'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개역에서는 생기라고 번역했는데 개정은 바람으로 번역했다(8).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아보이는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보자.

그 다음의 표현(죽는 날, 전쟁)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격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인다.

6. 장래사도 알 수 없고 생명과 관련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해서 해롭게 한다(9) 이 어려운 땅에서 서로 협력해서 살아도 시원함을 판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다니...! 악한 통치자에 대한 언급이다.

7. 악인(악한 통치자)들이 장사지낸 바 된 것이나 그들이 잊혀져버린 것이 왜 그렇게 헛된 일인가?

장사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악인이 악인으로 징벌당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쩌면 칭송받으며 장례를 치러주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잊혀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름도 없이 살다가 간 사람보다 한 때 온 세상을 휘두르던 사람이 죽어서 잊혀지는 것이 더 허무한 일 아닐까? 연예인들이 잊혀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던데? (10절은 개정과 개역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개역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결말로, 개정은 악한 사람의 결말로 번역했다. 양쪽으로 다 번역이 가능할 정도로 의미가 분명치 않은 탓이다.)

8. 하나님은 왜 즉시 심판하고 즉시 상을 주시지 않는 걸까? 그렇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만약 행위대로 즉시 상벌을 주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하나님께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나 소경을 고치실 때 뻔히 아시면서 질문하시던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것). 두려워서 순종하는 척할 뿐이다. 자녀를 엄하게만 키우면 비슷한 부작용이 생긴다. 어느 날 비풀어지기 시작하면 끈잡을 수 없게 된다.

9. 도대체 악한 짓을 해도 징벌 없이 장수한다는 말인가(11-12a), 아니면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인가(12b-13)?

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짧은 날 동안(기껏해야 100년)만 보기 때문이다. 범위를 더 넓혀서 1000년, 만년의 기간으로 본다면 악인의 형통이 결코 형통이 아니다(시 90: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시 50:21)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알이 드러내리라 하시느도다

10.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래도 즐겁게 살라는 것이다(15, 2:24, 3:13).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엡 5:20, 살전 5:18)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도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하물며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가난한 형제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신 12:12, 14:26, 26:11)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의 사소한(?) 억울함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11. 밥냇으로 자지 못할 만큼 머리 아픈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 이런 난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인정하고(9:1 =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지(15) 문제 자체에 아무리 집착해도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혜자라도 안 된다(17).

전도서 9 장

1. 1절은 8:17절과 연결된 문장이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문장 앞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대체로 생략해버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 뿐: 이런 저런 모순투성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속이 편하다. 일시적으로 사랑을 받는다 싶어도 길게 보면 그것이 해로울지 이익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그른지를 면밀하게 살피며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2.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앙이 똑같이 임한다면(2) 굳이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신뢰의 문제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묻는 셈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죽음 이후의 심판과 상 주심을 믿지 않고서야 이런 믿음은 불가능하다.

3.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3)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우월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재산이나 지식이 더 많다고 우쭐떨 이유가 없다. 모든 인생이 다 약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낄 이유가 없다.

4.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죽음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면 살아있는 것은 복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4) 살아있다고 다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소망) 때문에 복이 있다(7, 3:13).

5. 하필이면 개와 사자를 비교하는가?

개는 가장 천한 동물이고 사자는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6. 장차 죽을 것을 안다는 것이 죽은 자들보다 나은 이유가 되는가?

죽을 것을 알기에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살아있다고 반드시 복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이 땅에서 누릴 복락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큰 상은 역시 죽음 이후에 누릴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다(6).

7.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서(1-6) 느닷없이 인생을 즐기라는 것(7)은 무슨 뜻일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인생에게 닥치는 이런 아픔이 단 순히 죄의 결과라고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음을 믿고(1) 살아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이다.

8. 먹고 마시며 좋은 옷을 입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는 말이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헛된 날들이다. 주어진 동안만이라도 마음껏 즐겁게(7-9), 열심히(10) 살라는 것이다.

9. 인생을 기뻐하고 즐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

음식, 포도주, 흰 옷, 향 기름, 그리고 아내: 아내를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아내에게는 남편이 답이 겠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낙 하나가 없는 셈이다.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아내가 되레 원수가 될지도 모르지만.....

10. 솔로몬이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겐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기는 부인이 천명이 넘었는데(왕상 11:3) 우리 보고는 한 사람의 아내와 살라는 말이잖아? 부인이 많은 것이 절대로 행복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의 말 아닐까(잠 5:15-20 참고)

11.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반드시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시기와 기회를 잘 만나야 한다. 시기와 기회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인정하면서 노력하라는 것이다. 기회나 시기만 기다리는 것도 온당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도외시키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는 것도 교만이다.

12.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고 해도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움푹달락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떡하란 말인가?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이를 기억하라: 만사가 자신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렘 10:23).

13. 솔로몬이 보고 놀란 것 두 가지는 무엇인가?

조그마한 성음의 지혜자가 큰 왕을 막아낸 것과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지혜는 그 어떤 무기보다 위력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일은 더더욱 고약한 짓이다. 지혜를 우습게 알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일이 생긴다. 변호사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는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모양이더라.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식해서 그렇겠지.

14.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표현을 솔로몬이 본 것처럼 바꾼다면?

저렇게 가난한 것이 무슨 지혜가 있다는 말인가?

15. 지혜로운 말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예를 들어보자.

엘리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다(시내산의 장엄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공적인 만남의 성격이 강한 탓이다). 예수님도 큰 소리를 치신 경우가 거의 없다(마 12:19). 합창에서 진짜 강조되는 것은 *Pianissimo*다.

16. 무기보다 나은 많은 지혜를 무너지게 만드는 한 죄인이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어리석은 상판: 부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시기해서 나라를 망친 높은 자들이 적지 않다. 계백이나 성종의 간언을 무시한 의자왕이나 경제를 개혁할 좋은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내놓으라고 했다가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한 교수를 처형시킨 김정은이나 나라를 말아먹기에 딱 알맞은 죄인이다.

17. 본문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는가, 아니면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하는가?

양쪽 다: 인생에게는 허무한 요소(1-3, 11-12, 15-16, 18)와 의미 있는 요소(7-10, 14-15)가 섞여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전도서 10 장

1. 죽은 파리가 향수에 악취가 나게 만든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누가 이런 짓을 하더라?
어물전 팔뚜기: 지극히 작고 나쁜 것이 전체를 망치게 만드는 예다. 주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 여기서는 우매가 모든 지혜와 존귀를 망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팔뚜기 자체는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다. 작고 못 생겼다고 존재 의의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음이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2. 중동에서는 음식을 손으로 먹는다. 어떤 분이 '화장실 다녀와서 어떻게 그 손으로 먹느냐?'고 걱정을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왼손, 오른 손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쓴다. 음식은 어느 쪽 손으로 먹고 화장실에서는 어느 손을 쓸까?
음식은 오른 손: 성경에서도 대체로 오른쪽은 좋은 의미로(마 25:34), 왼쪽은 나쁜 의미로 쓰였다(마 25:41).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고 불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이다.
3. 사람들이 우매한 자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의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는데 여전히 자신은 모르는 것이 문제다. 덕을 세우는 데에는 믿음만으로,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입이라도 꼭 다물고 있으면 낫기는 한데(잠 17:28).
4. 소나기는 피하라던데? 일단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하는 것이 상책 아닐까?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으나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교통법규나 왕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뺑소니는 죄가 훨씬 더 크다. 하물며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최상이다.
5. 우매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은 한 마디로 재난이다. 태풍이나 가뭄보다 더 무서울까?
 자연재해는 한 두 번에 그칠 수도 있고 지속적이거나 예상되면 예방도 할 수 있지만 우매한 왕의 통치는 지속적일뿐 아니라 미치는 파장도 더 클 수 있다.
6. 종이 고관행세를 하고 고관이 종 행세를 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6-7)?
부정한 일이나 부당한 권력이 관계되면 그럴 수 있다: 모 대통령이 '최고학부를 나온 최고경영자가 촌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더니 모 건설회사 사장이 투신자살해 버렸다. 군대도 계급이 아니라 보직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계급을 무시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런 하극상 같은 일도 일종의 재난이다.
7. 합정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빠뜨리기 위해서 파는 것인데 왜 자기가 빠지는가?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 답을 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하튼 지혜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불러온다.
8. 수영 못하는 사람과 수영을 잘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더 클까?
수영을 잘 하는 사람: 물을 겁내지 않기 때문이다. 익숙한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다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9). 이것도 우매한 사람의 예다.
9. 쉬지 않고 열심만 낸다고 더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다가 잠시 쉬는 것이 더 결과가 낫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하다가 쉴 때 날을 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 우매한 자는 무조건 열심만 낸다. 열심도 내지 않는 자는 나쁜 놈이고!
10.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이 소용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주술은 예방용이지 치료용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효력을 장담할 수도 없는 주술도 적절한 때를 맞추어야 한다면 적절한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지혜다. 점쟁이도 과거는 잘 맞춘다. 이미 지나간 거야 알아서 무슨 소용인가? 예방용 백신이 치료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과거를 안다고 미래도 알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11. 우매한 자들의 말은 우매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미친 것으로 끝난다(13).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자기(12, 15):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입히겠지만 우선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다.
12.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14)?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래사를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다. 실상은 성음에 들어갈 줄(=가장 기본적인 일)도 모르면서! 그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13.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더니 갑자기 어린 왕이나 아침부터 잔치하는 대신을 언급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뜻인가?
동일하게 우매하다는 뜻이다: 왕이 나이가 적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처럼 능력이 없는데다 대신들마저 먹고 노는 일에만 열심이라면 결말이야 뻔하다. 17절과 대비된다.
14. 복있는 나라의 왕과 대신을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어야 하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어야 한다: 귀족의 아들이란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뜻이고 정한 때에 먹는다는 것은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18절을 참고 하면 게으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15. 잔치나 포도주는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돈이 범사에 이용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는 뜻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은 황금만능주의라고 불리는 현대의 병인줄 알았는데 과거에도 있었네! 그러면 19절은 돈의 위력으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그리는 셈이다.

16. 심중에 있는 말이나 침실의 말이 어떻게 새어나간단 말인가? 설마 새가 전할까?

자신도 모르게 속 마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해야 할 권위는 인정하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다보면 경영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 무시당하기도 한다. 때로는 수백, 수천 명의 일터가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경영자나 투자자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기도 한다. 이런 모험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서 11 장

1.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때로는 양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물에 던진 떡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배후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해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마저 물에 던져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요나가 탄 배나 바울이 탄 배가 그랬다. 때로는 생명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더 큰 것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세가 왕좌를 버린 것,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 롯이 시어머니를 따른 것, 야곱이 베냐민을 놓은 것 등이 그런 예다.

2.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1)은 재앙의 날(2)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중에 도로 찾을 수 있으려면 평소에 뭔가를 해두어야 하는 것 아닐까?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2, 잠 19:17): 경주 최부자의 얘기에 농민반란이 일어났을 때 농민들과 소작민들이 앞장서서 최부자의 가문을 지켜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평소에 베푸는 삶이 결정적인 파국의 때에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의 얘기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이보다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3. 어쩌면 모든 재앙도 당연히 일어나는 일(3)인지도 모른다. 단지 사람이 모를 뿐이다.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제 때에 하지 못할 수도 있다(4).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태아가 어떻게 자라든지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기회가 있을 때 선을 베풀고(1)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잘 하라(4):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없더라도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5). 전도자는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5가지)?

풍세, 비오는 때(4) 바람의 길, 태아의 성장(5), 식물의 성장(6):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일 뿐이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다 해도 - 인간이 이룩한 위대한 문명과 비교해 보면 - 이렇게 사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다.

5. 때를 맞추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농사의 기본인데 풍세를 살피는 것이나 구름을 기다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상하다. 4-6절의 문맥에서 본다면 무슨 의미일까?

환경이나 형편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혹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움직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최선을 다하라: 우리 인생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열심을 낼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함을 극복해낼 방법이 없다. 불확실한 장래가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갈 6:9).

6. 맨 눈으로 해를 보면 눈이 상하는데?

해는 밝은 인생에 대한 비유다: 소경과 비교해 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빛을 본다는 것은 인생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밝은 생활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7. 다가올 날이 헛되면 어쩌지? 걱정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접어두고 현실을 즐겨워하라는 말이다. 방점은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에 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마 6:34)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8. 청년의 때를 즐기란 말인가, 즐기지 말라는 말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즐기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따라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2:24, 3:13, 5:18)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9. 왜 하필이면 청년의 때를 언급하는 걸까? 어릴 때도 있고, 장성한 날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 청년의 때가 인생을 즐기기에 가장 좋고 보람 있는 인생을 준비하기에도 가장 요긴한 때이다. 이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이런 때가 놓고 지내기도 가장 좋다.

10.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히브리인의 표현 양식을 고려하면 '근심'과 '악', '마음'과 '몸',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은 반복(= 같은 내용)인 셈이다. 그러면 9절과 10절은 어떤 관계인가?

반복: 10절의 '근심'은 분노,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뒤의 '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악을 초래하는 분노나 슬픔을 가리키는 셈이다. 결국 어릴 때와 젊은 시절에 악한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이니 9절의 반복인 셈이다.

11.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전도서의 일관된 사상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선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되 즐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는 말고!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셈이다. 11장부터 전도서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전도서 12 장

1. 전도자가 아무리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노래했어도 그것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창조주가 있기 때문: 인생의 덧없음도 따지고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다. 왜 그러셨냐고? 아마 전도자는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으리라는 정도만 알았을 것 같다.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란 것을 안다. 선악과를 만드실 수 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2. 언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을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낙원에 간 오른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던데?

가능한 빠르게: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이다. 늦어도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이라는 뜻도 될 것이다.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때에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그 때를 방황하거나 방탕하게 지낸다면 너무 안타깝다. 우편 강도가 부러운 사람은 예수 믿는 즐거움을 모르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그게 더 힘든 건 줄 모르고!

3.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어떤 날이 오는가?

끈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어두운 날, 연이어 비오는 날(2) 육체가 쇠약하여 아무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날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4.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왜 어두워지는 걸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걸까?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보인다는 뜻: 여기서는 지구의 종말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

5. 청년의 때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으려만 노년의 때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좀 뜻밖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니 대비하란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2-6절의 설명이 신체의 노쇠현상이라고 본다면 다음 표현은 신체의 어떤 부위에 해당할까?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 멧돌질 하는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음악하는 여자 살구나무 꽃 흙

신체의 전반적인 모습(특별히 힘을 쓰는 팔 다리일 수도 있으나 온 몸의 근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빨, 눈, 성대(음악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귀도 가능함), 백발, 신체

6. 노쇠한 현상을 가리키는 다음 표현들은 무슨 의미일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자 길에서 놀라는 자
메뚜기도 짐이 될 것 영원한 집으로 돌아감, 조문객들이 왕래함(깨지는 것들)

잠이 적어지는 것이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함, 오르막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 숨도 차지만 관절이 약해서 노인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일 수 있다, 평지를 걷는 것도 쉽지 않음,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람
아무리 가벼운 것도 무거움, 죽음

7. 이런 때가 온다면 청년들이 끈이들을까?

순진하고 어리숙한 청년들이 끈이들을 것: 이런 어리숙한 사람이 복되다!

8. 서두에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말미에 와서 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결론을 지으려고: 결론을 말하려고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다.

9. 전도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13):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루터가 전도서를 강해하면서 '회색 모자를 벗어던지고 빨간 모자를 쓰자'고 했다. 빨간 베레모는 공수병들이 즐겨 쓴다. 민첩, 경쾌, 발랄, 정열을 의미한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회색 모자지만 하나님을 알면 빨간 베레모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10. 스스로 지혜자였고 지식을 가르쳤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는 것은 자랑 아닌가?

자기 말을 신뢰하라고 *PR*하는 셈이다. 이런 자랑이 역효과가 날지 모르지만 자신을 알리는 말도 요령껏 해야 한다. 솔로몬은 잠언 삼천을 말하였다(왕상 4:32)

11. 찌르는 채찍? 아프잖아?

죽는 것보다 낫다: 짐승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목자가 쓰는 연장이다. 바른 길로 가도록 찌르는 건데 이게 싫으면 죽을 수도 있다.

12. 잘 박힌 못은?

아주 유용하다는 뜻이다: 좋은 스승의 한 마디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는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 잘 박힌 못 정도가 아니다.

13.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에게 가장 은혜가 될 말씀은?

없다: 12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허무하다는 뜻일 뿐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학생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